



대학주보

이공계 학생 이탈 심화 ... 미래 불안 · 의대 증원이 부추겨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공계열 타 학과로 옮겨도 봤지만, 그마저도 적성에 맞지 않아 진로가 확실한 의약학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재원(응용수학 2025) 씨는 두 번의 입시를 겪고도 다시 한번 재수를 결심했다.

이 씨만의 상황은 아니다. 지난 3년간 우리학교를 자퇴한 전체 학생 중 45.8%가 이공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96명 중 412명이다. 2023년과 비교해 2024년 이공계 이탈 학생 수는 52명 증가해 14.3%p 상승했다.

이공계 학생 이탈 현상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생의 중도이탈자 수는 1,337명이었다. 1,200명대를 유지하던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오른 수치다. 한양대 공과대학은 지난 3년간 자퇴율이 매년 평균 16.5%p씩 상승하고 있다.

이공계 인재 유출 의대 증원이 가속화

이러한 이공계 이탈 현상은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과대학 최진환 학장은 “산업 구조 변화와 진로 다양화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조기에 재검토한다”며 “최근 융합 역량이 강조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체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원자력공학과 졸업생 장은희(원자력공학 석사 3기) 씨는 “공학 분야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로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의 차이를 체감한다”며 “학부생 때부터 실무 능력을 쌓는 친구들이 더 현명해 보일 때도 있어 최근 불안하고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택은 미래가 보장된 의학계로의 진학이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작년 전국 40개 의대의 모집 정원은 3,058명에서 4,610명으로 확대됐다. 이후 우리학교 이공계 자퇴율은 13.5%p 증가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입시 판도를 크게 흔들며 상위권 대학 경쟁 구도까지 연쇄적으로 변화시키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위권 수험생들이 대거 의약학계로 이동하고, 그 영향으로 상위권 대학의 경쟁 구도까지 재편된 것이다.

임 원장은 “2년 뒤 교육과정이나

평가 수능의 난이도는 하락할 전망이다”이라며 “지금같이 취업 시장이 계속 얼어붙어 있다면 반수 열풍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공계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석·박사 학위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단 분석이다. 한정된 일자리에 학위자만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석·박사학위 취득자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약 0.05%씩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중 구직하지 못한 인원의 비율은 30%에 육박했다.

미래인재센터 김준완 센터장은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더불어 많은 인력이 AI로 대체되면서 기업들은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소위 '고급 인력'을 선호한다”며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시장에서 석·박사는 이전만큼 큰 차별점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 대학, 계약학과 추진 우리학교 이공계열 경쟁력은?

국내 대학은 이공계 인재를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계약학과 개설을 통한 인재 확보다. 계약학과는 학과와 기업이 협약

을 맺어 맞춤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바로 채용하는 '채용맞춤형 학과'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하이닉스 등의 대기업 계약학과 인기는 상승세다. 작년 기준 서울대·고려대·한양대 등 주요 대학 11개 계약학과 평균 이탈률은 3.2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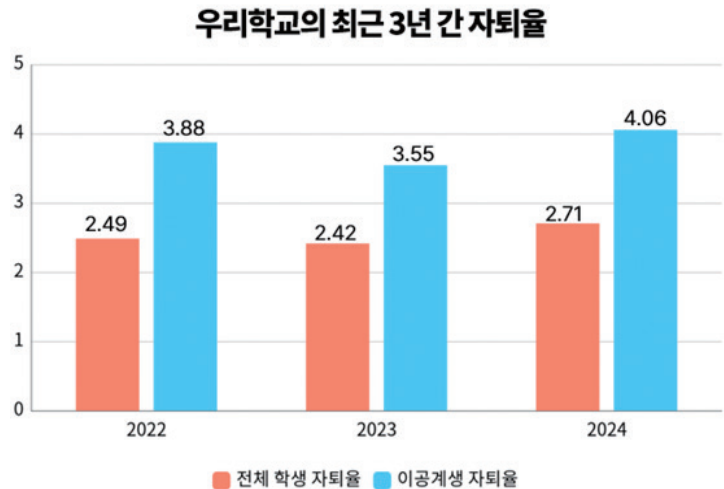
우리학교 공대에서 올해 계약학과인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로 편입한 정성수 씨는 “이공계열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대학생들의 스펙이 고도화되며 취업시장 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타대학 계약학과 편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과대학 행정실은 “현재는 대학원 내 우수 인재 유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계약학과 신설은 논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GS 리테일, 삼양식품 등의 기업 채용에 이점을 주는 산학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를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제도 확대도 논의 중이다. 미래인재센터 최혜림 행정계장은 “이공계 내에서도 직무가 세분화되며 기업들은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반도체, 데이터 등 이공계 관련 직무 중심의 부트캠프 프로그램 또한 계획 중”이라 말했다.

경우,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으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받고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학사과 박소현 주임은 “대학은 교육적 목적을 가진 곳”이라며 “최소 학점인 1학점 이상을 수강하며 교육을 이어나갈 때만 학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우리 학교는 아직 해당 제도를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한아람 담당자는 “제도를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학생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뒤 요청이 있었다면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 우리학교는?

이채형 기자 leechaehyeong0107@khu.ac.kr

주요 대학들이 졸업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 학교는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단과대학에서 지정한 이수 학점

과 졸업논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졸업유예로 판정한다. 다만, 졸업기준 학점을 모두 이수했으나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료로 판정한다.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는 학생이 졸업에 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졸업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등 재학생 신분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수도권 주요 18개 대학 중 11곳(61%), 전국 41개 국공립대 중 27

곳(64%)이 해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제도를 도입한 고려대 학사팀은 “수료를 통해 졸업을 연기하는 방식에서 졸업을 희망하는 시점에 졸업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졸업이 불가한 사례가 있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도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진로탐색 기간을 확보해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

는 학교도 있었다. 한국외대 학사종합지원센터 김경필 과장은 “졸업논문 심사가 통과된 이후에 학생 요구에 따라 졸업심사결과 보고서에 졸업논문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방식과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교육지원팀 송상진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재학생 외의 학생들이 도서관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 과밀 문제가 우려된다”며 “해당 제도를 도입할

2 종합

“결산 공개 안 지켰다”… 경제학과 회장 탄핵 시도 무산 임시총회 정족수 미달로 안건 자동 폐기, 회칙 위반 논란 남아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서울】 경제학과 송지해 학생회장(경제학 2024)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임시총회 정족수 미달로 안이 자동 폐기됐다.

경제학과는 지난 7일 탄핵안을 다루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전체 투표에 부칠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당일 오후 7시 반 현재 총회 성원 부족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송 회장은 해당 총회에서 정족수를 미달하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송 회장의 회칙 준수 의무 위반과 학생회비의 부적절한 사용 및 증빙 부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학과 학생회칙 제138조에 따르면, ‘매달 첫 주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난달 집행한 학생회비 결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송 회장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의 결산안을 제때 올리지 않았고, 이달 1일에 일괄 공개했다.

24년도 대의원직을 맡은 바 있는 이현규(경제학 2020) 씨는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을 문제 삼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회칙 제138조 위반을 지적하며 “공개한 지출 내역에 대한 통장 증빙 자료가 없거나 3월 결산안의 경우 영수증이 누락된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학생회비가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3월 결산안에 따르면, 학과 점퍼(과잠) 구매를 위한 비용으로 ▲5,023,300원이 기재됐지만 이 중 ▲1,240,800원에 해



지난 7일 오후 6시에 열린 임시총회. 사진은 오후 6시 50분 경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대기 중이다.

(사진=이서현 기자)

당하는 일부 금액이 경제학과 집행부 후드집업 구매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출 내역상 과잠 구매를 위해 수합한 금액은 총 3,782,500원이지만, 실제 업체에 입금한 금액은 총 5,023,300원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1,240,800원의 차액이 발생했으나 이 금액의 총당에 대한 증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폐소추자(송 회장)는 경제학과 학생들을 위해 학생회비를 집행하도록 위임 받았으나, 이를 집행부 의류 구매에 사용한 것은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28일 정기총회 뒷풀이를 목적으로 학생회비 미납자에게 170,000원을 건넸으나 해당 금액은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학생회비에 흡수된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이 씨는 “3월 170,000원을 수합하고 난 뒤 잔금 2,605,533원이 4월 1일 자 지출 증빙의 전월 이월금과 동일하다”며 “회식을 목적으로 수합한 학생의 재물을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일부 학생의 재물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제기된 사안과 관련한 우리신문의 취재 요청에 불응했다. 다만 지난 3일 발표한 입장문에는 “지난달 집행한 학생회비 결산 공개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접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회칙에 따라 성실히 절차에 임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성 부학생회장(경제학 2024)은 “결정 난게 없으니 임시 총회 이후에 연락하라”며 취재 요청에 불응했다.

한편, 경제학과 대의원회 소속 대

의원 12인 가운데, 직선대의원 이호진(경제학 2025) 및 경제학과와 동아리 회장 7인(강가연, 박건희, 한민욱, 박석주, 하늘별, 권도원, 김민경)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지만 송 회장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됐다.

23년도 대의원직을 수행한 바 있는 장우현(경제학 2022) 씨는 지난 달 31일 임시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선거시행세칙 제10조(선거권) 개정안이 ‘4학년 및 유학생’의 선거권을 축소하는 형태임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선거시행세칙 제10조(선거권)’에 따르면, 경제학이 제1전공자인 정회원은 학생회장단 및 직선대의원 선거권을 가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4학년 및 유학생을 사고처리(=선거권 제한)하되, 만약

이들이 실제로 투표한 경우에는 명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의원들은 개정안을 의결한 근거로, 사고처리가 되더라도 ‘투표한 경우에는 명부에 삽입한다’는 단서를 두어 형평성과 참여권은 이전과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졸업 예정자인 4학년은 취업 준비 및 졸업 요건 이행 등으로 인해 투표 참여가 곤란한 상황이 빈번하므로, 이를 사고 처리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회칙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장 씨는 “이들이 4학년 및 유학생의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안에 찬성했기에 탄핵소추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직접 대상자의 의사를 묻는 절차 없이 개정안을 공포한 송 회장에 대한 책임은 이 씨의 탄핵소추안에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1면에서 계속 →

이어 현재 방식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며 쌓인 안정성이 있다”며 “학교가 정한 규정 속에서 학생들이 해석을 통해 졸업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3년 이내에 졸업 유예생을 졸업시키거나 제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재학 연한의 제한이 없는 ‘수료’ 제도와 대비된다.

한편, 학생 대다수는 졸업을 유예하는 이유로 취업 공백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박지호(사회학 2021)

씨는 “학교를 졸업하면 더이상 학생 신분인 것이 불안감을 느낀다”며 “졸업을 유예하면 학교가 제

공하는 도서관 시설과 인터넷 강의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건형(철학 2023) 씨는 “공백

기가 길어질수록 취업에 불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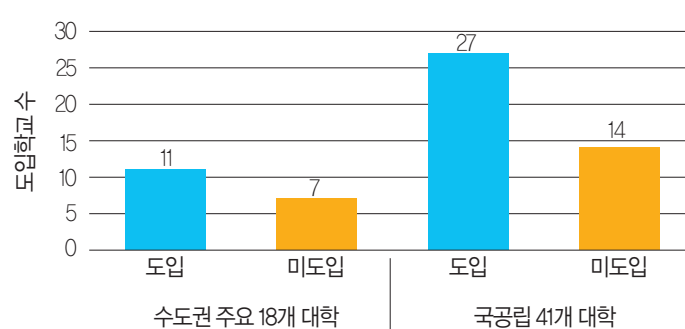
이어 “참가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공모전도 있어서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의 장점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졸업유예, 수료,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비교표

구분	졸업요건		수강여부 (졸업논문)	학적
	이수학점	졸업논문		
졸업유예	충족		가능	재학생
수료	충족	미충족	불가능	수료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수강	충족	가능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미수강		불가능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도입 현황(2025)



“단기 성과보다 미래 기반 쌓는 데 집중”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총학 공약점검 - 서울캠퍼스

서울캠 총학생회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두고 공약을 점검했다. 단순 공약 이행을 평가보다는 ▲교양 절대평가 도입 ▲재정운용설명회 정기 개최 등 주요 공약을 위주로 점검했다. 엄규민(경영학 2020) 총학생회장, 허예담(자율전공학 2023)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공약에 대한 자체 평가와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들었다. 다음호엔 국제캠 총학을 만나 공약을 점검한다.

‘필수교양 전면 절대평가’ 어려워 ‘역량중심평가 제도’로 계획 변경

총학은 학사 공약으로 필수교양 전면 절대평가 전환을 시작으로 하는 ‘교양 과목 평가 기준 단계적 완화’를 내걸었으나, 아직 이행하지 못했다. 서울캠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김진해 부학장은 “총학과 최근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학사 제도 변화는 양캠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캠과의 소통도 필수적인데, 국제캠 후마 이준태 학장은 “학사에 대해선 국제캠 총학과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약에 대해 총학은 현재 교육혁신추진단이 검토 중인 교양 과목 ‘역량중심평가 제도’ 도입으로 눈을 돌렸다. 엄 회장은 “총장님께 교양 평가에 대한 의견을 여쭙했을 때 ‘절대평가도 좋지만, 역량중심평가는 어떻겠냐’고 하셨다”며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량중심평가’는 학생마다 가진 역량을 중심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제도다. 가령 엄 회장은 “조별 과제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학생은 성적표에도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는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학사 제도인 만큼, 도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학점 처리 방식이 요구되지만 엄 회장은 “아직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총학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평가 기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의 교양 평가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약 70%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서술형 항목에선 대부분이 ‘절대평가 전환이 교양 과목의 취지와 설립 목적에 맞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엄 회장은 “절대평가도 학점 인플레이션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며 “지금은 역량중심평가 제도가 가장 알맞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의견도 있다. 김 부학장은 “600개 정도 되는 모든 교양 과목이 각자에게 적절한 역량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학생이 어떤 성취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할 도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역량중심평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정운용설명회 개최 예정 세척 개정 위한 TF도 구성 중

‘재정운용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공약은 기획조정처 예산팀과 함께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총학은 “남은 임기 동안에는 학생 대표자와 부총장 간의 정기회의체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총학이 이어가길 바라는 공약으로는 ‘교양 과목 평가 기준 단계적 완화’를 꼽았다. (사진=하시연 기자)

지난 9월 설명회가 열렸지만, ‘정기 개최’가 뜻하는 정확한 개최 빈도에는 의문이 따랐다. 엄 회장은 “원래는 분기당 1회로 생각했지만, 예산팀에서 분기마다 열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내년에 사용할 예산 설명을 위해 2학기가 끝나갈 시점에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16년 만에 등록금이 인상돼 약 100~11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됐다. 지난 재정운용설명회에서 김영진 예산팀장은 “내년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엄 회장은 “총학의 기조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를 학교에 전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한다면 학생 대상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할 예정”이라며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인상된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길 바라는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 존폐 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세척의 불명확성 문제에 허 부회장은 “11월 중으로 회칙 개정 TF를 발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운영위원회 불참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며 “애매했던 점들을 정례화해서 혼란을 없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엄 회장은 “불참 사유서 가결 기준은 예외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세척에 명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양 절대평가 도입 등 차기 총학이 공약 이어가길

중앙도서관은 3층을 완전히 휴게 공간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했다. 엄 회장이 지난 1학기 소통간담회에서 ‘중앙도서관 공간 리모델링’을 발의했고, 이에 학술지원팀은 중앙

도서관 3개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다. 엄 회장은 “공약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가장 뿌듯하다”며 “휴게시설뿐만 아니라 세미나실도 생길 예정인데, 임기 내 정확히 어떤 변화가 있을진 모르지만 확답을 받았고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임장 지연 등 논란이 있었던 대동제에 관해 엄 회장은 “미흡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용했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봄 대동제는 5월 중순이었는데, 4월 초에 당선됐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다”며 “아쉽기도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가을 대동제에 더 잘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약 이행 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엄 부회장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공약이 없다”며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기반을 쌓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공약에 대해 “기반을 쌓는 공약들이 많아 가시적이지 않았지만, 학생과 학교를 연결하겠다”는 일념하에서 관철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아직 남은 임기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허 부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에는 학생 대표자와 부총장 간의 정기회의체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총학이 이어가길 바라는 공약으로는 교양 과목 평가 기준 단계적 완화를 꼽으며 “변화를 위한 진전은 있었지만, 임기 내 시행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총학이 우리학교의 교육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목소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5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실습기간 : 2025.12.22.(월) ~ 2026.02.28.(토)
- 신청방법 :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실습기관 조회 후 신청
- 신청 및 선발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선발	학점 심사
1차	2025.10.13.(월)~ 2025.10.24.(금)	2025.10.30.(목)~ 2025.11.05.(수)	2025.11.07.(금)~ 2025.11.14.(금)	2025.12.15.(월) ~
2차	2025.11.03.(월)~ 2025.11.17.(월)	2025.11.21.(금)~ 2025.11.27.(목)	2025.12.01.(월)~ 2025.12.05.(금)	2025.12.16.(화)

- 학생 참여기준
 -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단,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가능
 -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 졸업유예자 참여불가
 - 유학생은 체류관리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가능
 -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자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가능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http://intern.khu.ac.kr>)
서울C: 02-961-2352 국제C: 031-201-392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4 종합

의학도서관 1·2열람실 제2보존서고로 전환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서울】의학계열도서관 1·2열람실 운영이 종료됐다. 열람실의 용도를 중앙도서관 제2보존서고로 변경한데 따른 조치다.

중앙도서관은 ‘혁신 공간 창출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의 핵심은 기존 서고를 휴게와 학습, 연구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TF팀은 오래된 서적이나 대출량이 적은 약 12만 권의 장서를 수용할 공간을 검토했고, 의학계열도서관 열람실이 대안으로 결정됐다. 중앙도서관 3층 일부 서고와 중앙자료실 2·3층의 장서 약 12만 권이 동계방학 중 순차적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의학계열도서관 열람실을 택한 이유에 대해 TF팀은 공간 여건 외에도 낮은 이용률과 안전 문제를 꼽았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4년 공시 기준 의학계열 재적(한의대 제외) 학생 1,817명 가운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열람실 월평균 이용



중앙도서관 학술서비스팀 장소영 팀장은 “의학계열도서관 열람실을 제2보존서고로 전환함으로써 보존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조한음 기자)

인원은 5층 약 114명(6.3%), 6층 약 430명(23.7%) 수준이다. 또한 의과대학 건물 내에 위치한 의학계열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거리가 멀어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며, 외부

인 출입이나 단과대 간 마찰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 있다. 중앙도서관 학술서비스팀 장소영 팀장은 “의학계열도서관 열람실을 제2

보존서고로 전환함으로써 보존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의학계열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 공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과대학 1층 휴게공간은 지난해 6월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 열람실 폐쇄 이후 대체 공간 확보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심재민(의학과 2022) 씨는 “강의실과 가까워 평소에도 자주 이용했는데, 이제는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1층 휴게공간도 아직 열리지 않아 불편하고, 학습 공간이라기보다 휴식 공간에 가까워 학습 공간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황성연(약과학 2021) 씨 역시 “약대 근처라 자주 이용했는데, 사전 안내 없이 갑자기 폐쇄된다는 소식을 들어 당황스러웠다”며 “의대 1층 휴게공간은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어 다른 단과대 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행정실은 “11월 중순에는 1층 휴게공간을 개방할 예정이며, 현재는 의과대학 학생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지만 추후 운영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TF팀은 “의학계열 단과대와 협의해 시험기간 등 필요 시 강의실 개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챗봇 ‘쿠옹쌤’ 사용률 저조…교수·학생 ‘사용량 확보’ 관건

이은서 기자 silverwest2002@khu.ac.kr

“PPT 자료를 기반으로 연습문제 30개 생성해 줘”

수업 중 궁금했던 점을 바로 해결하고, 과제나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AI 튜터 ‘쿠옹쌤’이 지난달 E-campus에 도입됐다. 교수자가 쿠옹쌤에 학습자료를 업로드하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쿠옹쌤을 이용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교수 참여율이 저조해 실제 사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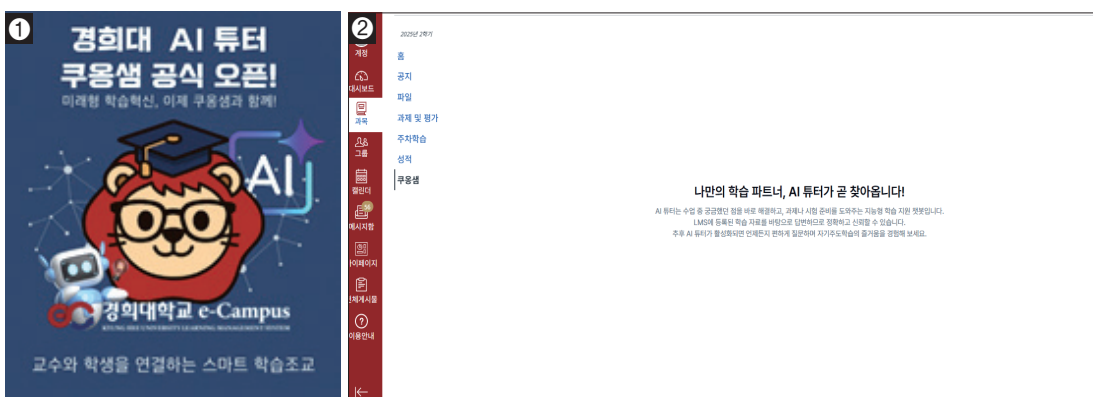
쿠옹쌤은 대표 마스코트 ‘쿠옹이’와 AI 학습 조교 ‘쌤’을 결합한 이름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도우미다. 학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대화 맥락을 유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쿠옹쌤은 기존의 범용 AI(Chat GPT, Gemini 등)와 달리 검색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만일, 강의계획서나 PPT 등의 학습자료, 영상 자막 등 교수자가 제공한 자료로 검색을 제한할 경우, 검증된 교수자료만으로 답변이 생성된다. 반면

웹 서치를 허용하면 인터넷 전반의 정보를 바탕으로 폭넓은 탐색이 가능하다.

정보 탐색 이외에도 학생들은 쿠옹쌤을 통해 학기 초에는 강의계획서를 토대로 한 학습 목표를 설정, 학기 중에는 질의응답과 학습 관리, 학기 말에는 시험 대비용 퀴즈 생성과 개념 복습 요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상현 교수학습개발원장은 “AI가 대학 교육에 접목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며 “모든 학생을 일일이 케어하기는 어렵지만, 쿠옹쌤을 통해 교수의 도움에 가장 근접한 지원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AI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며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AI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 원장은 “쿠옹쌤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문제를 만들거나,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복습할 수 있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쿠옹쌤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자



① 교수자가 쿠옹쌤에 학습자료를 업로드하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쿠옹쌤을 이용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② 해당 화면은 교수자가 학습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아 쿠옹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 (사진=E-Campus 화면 캡처본)

도 활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피드백 기반 교수법 개선’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질문과 학습 패턴이 누적되면, 교수는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지 파악해 강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지 원장은 쿠옹쌤의 최종 목표를 ‘학생의 수업 몰입도 향상’으로 꼽았다. 이어 운영 측면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사용량 확보’라고 언급했다. 지 원장은 “쿠옹쌤의 학습 성능을 높이려면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며 “많은 학생이 실제 학습 과정

에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처는 2018년 교내 AI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해 민원 응대 챗봇인 ‘쿠봇(KHU-BOT)’을 개발했지만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쿠봇의 경험을 바탕으로 AI 챗봇 ‘경희톡(KHU-TALK)’을 새롭게 선보였다.

경희톡은 ▲학생-교수 간 소통 및 정보공유 ▲사용자 그룹 내 정보 소식 공유 ▲대학 알림 정보 수신 등의 기능을 했다. 그러나 제작사 기술지원 종료, 서비스 계약 만료,

메시지 전송 오류 등 기술적 문제가 이어지며 장기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수학습개발원도 “챗봇 도입 실패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며 “쿠옹쌤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의 실제 사용 양상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나 민원 접수 등을 통해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향후 기능확장과 시스템 안정화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확운위 2인 자격 박탈 연이은 불참이 원인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서울】연이은 불참을 이유로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성원인 정경대 유학생회 장의영(행정학 2023) 위원과, 최민정(행정학 2022) 참여위원의 자격 박탈이 결정됐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는 미술, 치과, 의과대학 학생회장의 자격 박탈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두 기구의 성원 자격 박탈 심사는 불참 사유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확운위와 중운위 모두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아 관례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불참 사유서 제출 기한은 회의체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회칙에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기한을 넘긴 사유서도 함께 심사됐다.

확운위는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차기 성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장 위원은 제1차 불참 사유는 가결됐지만 제4차 확운위 불참 사유서가 부결되면서 자격 박탈됐다. 최 참여위원은 제2차, 제6차 확운위 불참 사유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 박탈됐다.

중운위의 경우, 3회 연속 불참일 경우 성원 자격을 박탈한다. 임시 2차 회의를 포함하면 미대는 연속 5회, 의대는 연속 3회, 치대는 6회 연속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속 3회의 불참 사유가 모두 부결된 경우가 없어 자격 박탈된 성원은 없었다.

엄규민(경영학 2020) 총학생회장은 “회칙을 바탕으로 관례를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허예담(자율전공학 2023) 부총학생회장은 “자격 박탈은 회칙상 이미 명시돼 있다”며 “특정 사안은 인정하고 다른 사안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판단이 지나치게 일률화될 수 있어 관례를 따랐다”고 말했다.

우리신문은 직전 신문에서 ▲불참 사유서 승인 기준 ▲중운위의 경우 불참 사유서 제출 의무 부재 ▲대리인 자격에 관한 세칙 부재 등의 사안을 살펴본 바 있다. 허 부회장은 이에 대해 “세칙 개정 TF팀이 구성된다”고 밝혔다. TF팀은 세칙을 검토하고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 부회장은 “11월 중으로 TF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중운위와 확운위 세칙 개정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는 가능하고 어느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식의 조항이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는 회칙에 결석제 제출 기한과 사유 명시, 3회 이상 결석 시 소속 기구에 공고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결석 사유를 참작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외대는 제59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석 및 지각·조퇴 규칙’을 별도로 두고, 결석·지각 사유 유형, 제출 기한, 증빙 서류 기준, 누적 산정 방식 등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성원 자격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리어프리, 서울 일부 개선 국제는 예산 문제 등 갈 길 멀어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우리신문은 2년 전, 교내 일부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캠퍼스를 다시 둘러본 결과, 서울캠의 장애인 시설 및 설비는 일부 보완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미개선 구역이 적지 않았다. 반면 국제캠은 대부분의 시설이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캠의 경우, 언덕길과 일부 경사로 구간이 공사를 통해 보완됐다. 학생회관에서 경희중·고를 지나 세화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긴 언덕길은 기존에 보도블록이 빠지거나 깨져 있었으나, 올해 5월 새 보도블록으로 교체됐다. 온실에서 생명과학대학으로 연결되는 경사로 역시 아스팔트 포장을 통해 패임과 단차를 정비했다.

그러나 ▲점자블록 부재 ▲출입문 경사로 단차 및 홈 ▲건물 내 승강기 미설치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구역이 남아 있다. 네오르네상스관 계단 하단과 청운관 인근 계단에는 감지용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문과대학 경사로의 깊은 패임과 단차 또한 여전히 그대로였다.

건물 내부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본관의 장애인 화장실은 2층에 위치해 있으나, 내부에 경사로나 승강기가 없어 접근이 어렵다. 중앙계단 우측 1층 화장실 입구에도 단차가 남아 있었다. 2023년 당시



① 국제캠 정문에서 학교 안으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막혀 있다. ②문과대학 경사로가 깊게 패여 있는 모습이다. (사진=서라수 기자)

서울캠 학생지원센터는 “학생회관 내부 승강기·경사로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시 연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캠 총무관리처 관리팀 김민석 계장은 “학생회관이나 본관의 경우, 구조상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며 “장애학생센터나 학생회관부터 별도의 개선 요청도 현재까지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제캠은 전반적인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예관으로 향하는 오르막 길에는 보도의 패임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정문에서 교내로 이어지는 경사로는 교통약자용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킥보드 이용 제한 안내문과 함께 사슬로 막혀 있었다.

보행 장애 학생이 사실상 출입할 수 없는 건물도 여전히 존재했다. 외국어대학과 국제대학에는 내·외부 경사로가 모두 없고, 체육대학은 외부에만 작은 경사로가 설치돼 있었다. 세 단과대학 모두 건물 내 승강기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교내 배리어프리 시설 개선은 총무관리처 관리팀과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제캠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장애학생들의 시설 개선 건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내 전 구역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위험 시설물과 무단 주차된 킥보드 등을 정리하고 있다”면서도 “예산 문제로 당장 공사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6 기획

계약서부터 살림살이, 월세와 안전 걱정까지 청년의 첫 집, 불안과 현실 사이에 서다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청년 1인가구 ③-집

“이렇게 혼자 사는데 짐이 많이 필요할 줄 몰랐어요. 계란후라이를 먹으려 해도 뒤집개가 필요하고, 친구들이 오면 나무젓가락도 구비해야 하더라고요.” 물건은 점점 늘어나고, 공간은 줄어든다. 이번 학기부터 자취를 시작한 김윤하(프랑스어학 2024) 씨는 혼자 사는 일상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얻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 계약서부터 살림살이, 월세와 안전까지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온다. 청년에게 집은 자립의 상징이자 불안의 출발점이다.

혼자 계약서 검토부터 보증금 사기 뉴스 불안까지

“처음 집을 보러 다닐 때는 설렘만, 두려움이 반이었어요. 그런데 다섯 군데쯤 돌고 나니까 체력이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올해 3월 처음 자취를 시작한 장다희(무역학 2023) 씨는 혼자 부동산을 돌며 방을 구했다. 어렵게 찾은 원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중에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지, 집 내부 하자는 없는지 알 길이 없어 인터넷을 찾아봤다. 그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검색해 집주인 재정상태와 따져봐야 할 세부 사항을 알아봤다”며 “너무 불안해서 계약서를 읽고 바로 부모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말했다.

청년에게 ‘집을 구한다’는 건 외로운 전투다. 그간 배운 적 없는 부동산 지식을 혼자 익히면서도, 집주인·부동산중개업자에게 ‘눈 뜨고 코 베일 일’을 피해야 한다.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섰기에, 경제적 한계를 ‘공간’의 차원에서 실감하는 첫 단계다. 입주 후엔 집주인 눈치를 보고, 혼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보증금 사기 뉴스를 걱정해야 한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 넘어갈 수 없는 구조다.

각종 사회 문제가 ‘1인 청년 가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 집이 사회 초년생 청년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생활비와 공과금, 가전 관리, 청소와 쓰레기 처리까지 모든 게 개인 몫이다. 청년의 ‘독립’은 경제적 자립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돌봄의 공백을 의미하게 된 거다.

“
혼자사는 청년의방은 작지만,
그 안에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담겨 있다.
청년 주거 문제를
개인의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들여다봐야 할 이유다.”

좁은 공간, 팍 찬 생활 혼자 꾸려가는 살림의 무게

독립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생활의 총체적 변화를 뜻한

다. 냄비, 수저, 빨래건조대까지 모두 처음부터 새로 채워 넣어야 한다. 좁은 공간에 생활필수품이 모이면서, 집은 쉽게 ‘창고’가 된다.

“부모님 집에서는 늘 있던 게 다 새로 사야 하는 게 되더라고요.” 김윤하 씨는 이번 학기부터 서천동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짧게 살 거니까 집에 있는 거 몇 개 가져오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은근히 필요한 게 계속 생겨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계속 다이소를 들락날락했던 것 같아요.” 단기 계약한 그는 짧게 살아서 살림이 필요 없을 거로 생각했지만, 사야 할 것이 점점 늘어나 당황했다고 한다.

서울주거포럼의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좁은 공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은 대부분 20㎡(약 6평) 안팎이다. 이 작은 공간은 혼자 살아가는 정서적 기반이기도 하다. 귀가 후 불을 켜는 손길도,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도 모두 혼자다.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 고칠 사람이 없다는 것,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느껴질 때 외롭죠.” 신유빈(미디어학 2024) 씨는 좁은 방 안에서 생활의 모든 짐을 떠안는 구조는 결국 피로를 낳다고 말한다. 생활비와 공과금, 가전 관리, 청소와 쓰레기 처리까지 모든 게 개인 몫이다. 청년의 ‘독립’은 경제적 자립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돌봄의 공백을 의미하게 된 거다.

안전과 비용 사이 ‘집’의 경계선

청년 1인 가구에게 집은 ‘은신처’이자 ‘위험지대’다. 김윤하 씨는 “축제 날에 12시 넘어서 혼자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술에 취한 사람들이 길가에 좀 있어서 무서웠던 경험이 있다”며 “특히 마차가 끊겨 걸어야 할 수밖에 없을 때 어두워서 무서웠다”고 말했다. 김 씨가 거주 중인 서천동은 국제캠 바로 옆에 자리한다. 대단지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지만, 정문 건너편에 비해선 한적한 편이다.

가스 점검, 소방 점검처럼 외부인이 집에 들어와야 하는 경우도 난감하다. “혼자 사는데 소방 점검을 하러 오시더라고요. 현관문 스토퍼가

없어서 문이 잠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혹시나 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건 채로 점검받아요.”

청년 주거는 언제나 안전과 비용의 저울질 위에 놓인다. 지난 8월 ‘다방’에서 발표한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73만 원, 보증금은 1,000만 원인 반면, 지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발표한 청년 월평균 소득은 274만 원이다. 즉, 청년 월평균 소득의 약 27%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의미다. 지난 9월부터 자취를 시작한 이귀환(미디어학 2021) 씨는 “현재는 월세를 부모님과 반반 부담하고 있는데, 취업해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보안이 좋은 신축 오피스텔로 옮기려면 월세가 10만~20만 원 더 비싸진다. 결국 많은 청년은 ‘조금 더 불안하지만 저렴한 집’을 선택한다.

혼자 사는 청년의 방은 작지만, 그 안에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담겨 있다. 청년 주거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들여다봐야 할 이유다. 방 하나의 세상 속에서 청년들은 오늘도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캠퍼스에 스며드는 ‘혐중’ 정서… 불안한 유학생들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연이은 대규모 ‘혐중 시위’로 불안감이 고조된 최근, 대학가도 반중(反中) 정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화장조(화교·짱개·조선족)’ 같은 혐오 표현이 등장한 것도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반중 인식에는 새로운 점이 있다.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에서 더 반중 의식이 두드러진다는 점과 혐오가 생활밀착적이고 일상적으로 녹아있다는 측면이다. 우리학교 중국인 유학생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다.

불안한 중국인 유학생들 “신변 위협 느낀다”

한국인의 반중 인식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중국인을 향한 실제 위협 사례까지 보고되자 유학생 내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별공’, ‘짱개’ 등 중국 혐오가 포함된 신고 집회는 2023년 13건, 2024년 15건에서 2025년(1~9월) 51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Shen Siyue(미디어학 2025) 씨는 “올해 처음 한국에 왔지만, 한국 사회의 반중 감정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며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시선을 받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Moo Yu(미디어학 2025) 씨는 “주변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 대부분이 인종차별을 겪었다”며 “한국 내 혐중 시위가 심해져 신변에 위협이 될까 봐 여행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는 신분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 외국인 재학생 중 중국인 비율은 2023년 82.4%(4,433명), 2024년 80.3%(4,200명), 2025년 77.7%(3,81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리학교를 이루는 주요 구성원이다. 하지만 인원이 많은 만큼 국적을 이유로 한 혐오나 차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Chang Hsin Yun(미디어학 2023) 씨는 “대만 출신이라 비교적 괜찮지만, 중국에서 온 친구들은 불편한 시선을 받는 경우가 최근에 더 심해졌다”며 “특히 수업이나 팀 프로젝트 발표에서 중국 학생을 배제하거나, 심하면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Li Qiang(경영학 2022) 씨 역시 “교양 수업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올해

Moo Yu 씨

주변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 대부분이 인종차별을 겪었다. 한국 내 혐중 시위가 심해져 신변에 위협이 될까 봐 여행을 취소하기도 했다.

Li Qiang 씨

교양 수업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기분을 느꼈다.

회기공인중개사무소 A 소장

일부 중국 유학생의 소음이나 청결 문제 경험은 누적되면서 10년 전부터 ‘중국인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는 말이 흔해지고 2~3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격해졌다.

초 국제제 글로벌교육지원팀이 다국적 유학생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유학생들의 수업·팀 프로젝트에서의 소외감이 전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세입자 기피 경향도 에타에는 허위·왜곡 정보까지

회기동 일대에서는 중국인 세입자를 꺼리는 분위기도 자리 잡았다. 회기공인중개사무소 A 소장은 “15년 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며 “일부 중국 유학생의 소음이나 청결 문제 경험이 누적되면서 10년 전부터 ‘중국인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는 말이 흔해지고 2~3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격해졌다”고 말했다. 노골적인 혐오 표현을 당했다는 사례도 존재했다. 자율전공 학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A 씨는 “중국어로 대화하면서 걸어가는데 ‘짱개’라고 수군거리는 걸

들은 적이 있다”며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매우 슬펐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중국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과 댓글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는 팀 프로젝트 등 학업 관련 토로가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중국인이 몰려오니 호신용품 들고 다녀 애들아”, “무비자로 와서 인신매매해도 모르겠네” 등 중국 관련 허위·왜곡 정보를 담은 글도 엿보였다. Moo Yu 씨는 “SNS에서 혐중 표현을 볼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아프다”라며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유학을 왔지만, 가끔 유학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Zhong Aluo(글로벌경영학 석사 3기) 씨 역시 “현실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했지만, 온라인에서 보는 모

습은 많이 달랐다”고 말했다.

혐오 표현 지양하고 학내 보호 방법 찾아야

글로벌교육지원팀은 한국어·중국어·영어가 가능한 전문 상담사를 상시 배치해 차별·혐오 피해 발생 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소수자 인권 위원회는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유학생을 위한 전용 상담체계와 언어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3학생이 학내에서 안전하게 발화하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만드는 것이 학생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캠퍼스 엄규민(경영학 2020) 총학생회장은 “총장님과 부총장님 역시 유학생들이 적응을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많이 표하신다”며 “총유학생회, 유학생들과의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어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들에게 반감을 가지는 어려움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향섭 교수는 “가짜 뉴스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서 반중 정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공식 언론 채널을 통해 검증된 정보에 접근하고, 중국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임동균 교수는 “반중 정서에 매몰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G2인 중국과 앞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공존할 것인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8 문화

전화 회피 · 텍스트 선호...눈총 받는 Z세대 소통방식

“해결의지 없는 게 아냐, 잠시 ‘렉’에 걸린 것 뿐”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문화트렌드 연속 기획〉

④ 눈총 받는 Z세대 소통방식

우리신문은 청년 · 학생의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기사를 연재한다. 네 번째 순서로는 20대, 특히 Z세대의 ‘소통방식 변화’를 다룬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통은 이 세대에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말 대신 표정이나 반응으로 의사소통을 대신하는 ‘젠지스테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Z세대는 정말 소통이 부족한 세대일까. 아니면, 단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세대일까.

‘MZ하다’, ‘젠지스테어’
지적받는 Z세대 소통방식

‘MZ하다’, ‘젠지스테어’는 Z세대(1997~2012년생)의 소통 방식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신조어다. ‘MZ하다’는 표현에는 ‘트렌디함’과 동시에 ‘무례하다’, ‘예의 없다’는 평가가 겹쳐 있다. 유튜브 ‘킵서비스’가 공개한 〈역시MZ〉는 MZ세대를 풍자한 내용으로 조회수 226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정승현(프랑스어학 2024) 씨는 “‘MZ하다’는 말을 들으면 ‘무개념’이라는 인식이 떠오른다”고 답했다.

‘젠지스테어’는 ‘Z세대(Gen Z)’와 응시한다는 뜻의 ‘stare’를 합친 말로, 질문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뜻한다. 최근 미국에서 이를 풍자한 영상이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취업 포털 인쿠르트가 회원 6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9%가 젠지스테어를 경험했다. 젠지스테어를 경험했을 때 드는 감정으로는 당황스러움 61.7%, 무례함 49.7% 등이 있었다.

Z세대의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개인주의 성향도 함께 주목된다. 장미화(영상학) 교수는 “요즘 학생들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무언갈 하려는 것보다는 혼자 알아서 다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캠 앞 ‘이프 와플’ 사장 김병진 씨는 “가게를 찾는 학생들이 필요한 말만 짧게 한다”며 “무례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전보다 정이 줄



‘젠지스테어’는 Z세대의 소통 방식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신조어다.

(이미지 출처=프리픽)

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삭토스트’ 사장 이태경 씨도 “키오스크 주문이 보편화되고 대부분 에어팟을 끼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가 줄었다”고 말했다. 강의실에서도 변화는 관찰됐다. 조진희(정치학) 교수는 “학생들의 답안이 짧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문제를 내도 한두 문장으로 짧게 쓰고 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텍스트 소통 선호하는 Z세대
무례 아니다, ‘말을 다듣는 것’

지난해 알바천국이 Z세대 765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소통방법을 조사한 결과, 텍스트 선호가 73.9%로 가장 많았고, 전화 선호는 11.4%였다. 또한, 40.8%가 전화를 할 때 긴장, 불안,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전화 통화에 대한 두려움·불안을 느끼는 ‘콜포비아’가 있다는 양서진(프랑스어학 2024) 씨는 “전화로만 문의받는 식당에 연락할 때면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정도”라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민소희(연극영화학 2024) 씨도 “전화는 대답할 시간을 벌기 어렵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피하게 된다”며 반면 “텍스트는 전송하기 전까지 확인, 수정할 수 있고 심지어 전송한 뒤에도 취소가 가능해 불안감을 대폭 줄여준다”고 답했다.

Z세대의 무례함이 일상화됐다고 말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반응도 있었다. 조 교수는 “실제 강의실에서 젠지스테어를 체감한 적은 없다”고 말했고, 학교 앞 분식점 ‘버무리’에서 일하는 이미옥 씨도 “먼저 인사를 건네면 대부분 학생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다”고 답했다. 이어 “젊은 층이 무례해 보이더라도, 개인 성격 차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 씨는 “젠지스테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나쁜 건지는 모르겠다”라며 “사회생활을 처음 할 나이인 Z세대가 상사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잠시 ‘렉’에 걸리는 것 뿐,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텍스트 중심의 소통을 선호한다고 해서 사람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진행해 보니, 질문과 토론 위주의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51명, 비대면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49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가 집계됐다. 비대면을 선호한다고 답한 조승우(정치외교학 2024) 씨는 “발표나 질문할 때 시선 부담이 덜해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대면을 선호한다고 답한 윤채연(치의학 2024) 씨는 “서로 의견을 바로 주고받을 수 있고, 표정이나 분위기도 같이 느껴져서 오해가 덜하다”며 “비대면보다 집중도 잘 되고 일도 훨씬 빨리 끝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발달하는 기술과 매체
변화하는 소통 방법

말을 고르는 Z세대의 신중한 성향에 장 교수는 “Z세대는 기술 발달과 매체 변화에 맞게 검토나 수정

능력이 발달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인희(언론정보학) 교수는 “옛날에는 찾아와서 직접 의논해야지, ‘건방지게 어른한테 문자를 보내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다”며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일단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게 예의인 것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기성세대에게 바라는 점으로 양 씨는 “요즘 애들은 말이야라는 식의 비난보다, 시대에 따라 가치관, 문화도 함께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선을 긋기보다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Z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비대면 방식에 이미 익숙해졌다. 다만 이 교수는 “학생들이 교수와 대면 소통이 어렵더라도 교수와 대면 소통 경험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래야 향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도 상사 혹은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간『컴퓨터 게임과 미래 기술』 놀이하는 인간이 기술의 시대를 이끈다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게임 산업의 발전은 기술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CD, DVD, PC, 온라인 네트워크, 동작 인식, 가상현실로 이어지는 기술의 변곡점에는 항상 게임이 있었다. 이제는 AI 기술 발달로 인한 게임 산업의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학교 출판문화원이 지난 9월 출간한 『컴퓨터 게임과 미래 기술』은 이에 대한 통찰을 인간의 본능인 ‘놀이’와 엮어 제공한다. ‘놀이’와 ‘컴퓨터 게임’을 중심으로 그 역사와 개발 과정, 최근 게임 산업의 변화와 미래 전망을 담고 있다. 서덕영(전자공학) 교수, 우탁(전자영상학) 교수, 전석희(전산학)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놀이에서 태어난 ‘게임’의 본질을 파헤치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요한 하위



출판문화원 신간『컴퓨터 게임과 미래 기술』
(사진=출판문화원 제공)

징아는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놀이가 예술, 축제, 스포츠, 종교, 문학은 물론 법률과 전쟁 같은 모든 문화적 산물의 근원”이라고 설명했다. 저자는 이에 더해 20세기가 ‘일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의 시대라고 말한다.

서 교수는 하위징아의 이론을 토대로 놀이를 인간 문화의 근원적 행위로 해석한다. 놀이란 자발적인 행위이자, 현실에서 벗어나 새 역할을 모방하는 활동이며, 일정한 시공간 안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려는 본능적 욕망을 지니는 것이다.

서 교수는 그 욕망을 실현하는 놀이가 현대에 들어서는 게임으로 이어져 왔다고 본다. 그는 “인공지능이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논다’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의미를 갖게 된다”며, “게임은 이런 놀이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적 표현이며, 이를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컴퓨터 게임을 알면 미래 기술이 보인다

기술과 놀이가 결합한 게임은 21세기 중요한 문화 현상으로 주목받

게 될 것으로 저자는 보고 있다. 초실감 몰입 기술의 상용화와 메타버스 콘텐츠의 확장이 게임의 가능성을 더욱 넓히면서다.

우 교수는 게임을 기술 발전의 선도 영역으로 본다. 그는 콘솔 게임이 아타리와 닌텐도, 소니를 거치며 디지털 게임의 기본 구조를 형성했고, 이후 온라인 연결과 멀티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통해 복합적인 미디어 경험으로 확장됐다고 분석한다.

최근에는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N스크린·커넥티드 미디어 형태로 진화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라 게임의 형태와 경험 방식이 계속해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 교수는 이를 향후 게임 산업 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한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공간이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은 대중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이므로 기술 혁신의 시험대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게임

은 문화와 기술의 실험실이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사유하도록 이끄는 매개체다. 이 책은 ‘게임’이라는 공통 주제로 오랜 인연을 이어온 세 저자가 각자의 강의 자료를 활용해 집필했다. 이들의 협업은 2013년 서 교수가 융합 연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도입 시에는 서 교수의 주도로 ‘21세기의 놀이하는 인간: 컴퓨터 게임 개론’을 개설해 호응을 얻었다.

강의가 끝난 뒤 “수업 내용을 책으로 엮어보자”는 논의가 오갔고, 이번 출판으로 결실을 맺게 된 거다. 10년 전 강의 자료를 최신 사례로 보완하고,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로 완성했다. 서 교수와 우 교수는 “게임과 놀이는 인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책을 통해 게임의 사회적 의미와 게임 개발자가 갖는 책임에 대해서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용문, 그 특별함을 찾아서

남기원(경희기록관)

경희유산④ ‘등용문, 그 특별함을 찾아서’

9월부터 경희기록관은 우리신문과 함께 ‘경희 유산을 찾아서’를 연재한다. 서울, 국제, 광릉 캠퍼스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은 물론 경희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역사적 기록물, 경희만의 고유한 정신 유산들을 중심으로, 그들에 관한 역사적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숨겨진 흥미로운 에피소드 등을 글과 사진으로 소개한다. 1차로 내년 여름까지 연재를 진행하고, 1년간의 연재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을 보완해 2차 연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캠퍼스 등용문을 드나들며 무엇인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치는 문이지만, 정작 등용문을 눈여겨

보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등용문은 여러모로 특별하다.

첫째, 역사다. 등용문은 1955년 5월 10일에 완공되었다. 1955년은 우리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해인 까닭에 등용문 머릿돌에는 ‘종합대학승격’이라는 문구가 한자로 새겨 있다. 올해로 건립 70주년을 맞은 등용문은 현존하는 국내 대학 교문 중에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 우리보다 역사가 앞선 대학도 캠퍼스 리모델링 과정에서 교문의 위치를 바꾸거나 새로 세우면서, 설립 연도는 대개 등용문보다 뒤쳐진다.

둘째, 형태다. 다른 대학 교문과 비교하면 등용문은 매우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많은 대학 교문은 기둥 두 개를 입구 양쪽에 세우고, 그 사이에 철문을 다는 식이다. 아예 문을 두지 않고 입구에 대학 이름으로 조형물만 세운 경우도 많다. 반면, 등용문은 전통 기법으로 돌을 쌓아 올린 구조를 하고 있으며, 지붕이 있는 아치형 문이 있고, 양기둥의 머리는 왕관 모양을 하고 있

다. 성문(城門) 혹은 유럽의 개신문처럼 하나의 완결된 건축물인 셈이다.

셋째, 이름이다. 서울캠퍼스 교문의 이름은 ‘등용문(登龍門)’이다. 잉어가 용으로 승천한다는 고사에서 따온 이름으로, 경희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큰 인재로 성장하라는 격려와 염원을 담아 붙인 것이다. 그런데, 대학 교문에 의미를 담아 이름을 붙인 경우는 흔치 않으며, 있더라도 나중에 명명된 경우가 대다수다. 등용문처럼 건축 당시부터 의미를 담아 설계하고 명칭까지 붙인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이 교문의 형태와 이름을 정할 때 남다른 접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교문의 역할과 의미를 남다르게 보았기 때문이다.

1955년 당시 등용문 건축은 학교의 형편과 어울리지 않는 대공사였다고 한다. 만약 문의 기능만을 생각했다면 간소하게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①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대학 교문이 세워진 연도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 1971년, 한양대 1971년, 부산대 1976년, 서울대 1978년, 건국대 1986년, 이화여대 2006년, 서울시립대 2012년. ②등용문 동편의 작은 문은 1999년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면서 새로 만든 것이다.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우리 대학은 교문이 단지 대학의 출입구 역할만 한다고 보지 않았다. 매일 등용문을 드나드는 학생들에게 경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더 큰 꿈과 의지를 북돋게 하기 위

해서는 여느 건물들처럼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그 위치, 형태, 이름을 유지하는 그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10 스포츠

‘형 같은 주장’ 우상현의 마지막 시즌 “이제는 프로무대에서 증명하고 싶다”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농구부 주장
우상현(스포츠지도학 2022)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직접 만나 그 목소리를 담아내려 한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다섯 번째 주인공으로, 14일 프로농구 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내민 농구부 주장 우상현(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를 만났다.

이례적으로 2년 동안 맡은 주장직
“리더십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농구 코트 위에서 ‘형 같은 주장’으로 불린 우상현 선수는 이례적으로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주장을 맡고 있다. 한 학년 위 선배들의 수가 적었던 데다, 그마저도 개인 사정으로 모두 팀을 떠났기 때문이다. 작년을 떠올리던 우 선수는 “어설픈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지만,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대학 선수들은 보통 졸업 이후 프로리그에 진출한다. 우 선수 역시 “1학년 때는 프로선수가 되고 싶어서 빨리 졸업하고 싶었고, 솔직히 4년이 막막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졸업할 때가 되니 아쉽



우 선수는 “프로지명을 받는다면, 신인상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우 선수 제공)

기도 하면서 기분이 묘하다”며 “10월 말부터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졸업은 여러 대회를 함께 한 동료들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2학년 권정인(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는 “상현이 형은 화날 만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유쾌해서 같이 있으면 너무 재미있는 형이었다”고 덧붙였다. 자유투를 놓친 선수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 격려하는 등, 우 선수는 후배들에게 든든한 존재였다. 그는 “정이가 많이 들어서 후배들이 아파나를 그리워할 것 같은데, 그만큼

나도 그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연습량 · 농구 태도 바꾸고 나니
3점슛 성공률 대폭 상승

우 선수는 대학 입학 이후 ‘열심히’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된 경험을 밝혔다. 매일 슈팅 300개를 던지고 남들보다 1시간 더 운동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만족하던 찰나, 코치들의 “그건 ‘열심히’가 아니다”라는 말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코치들은 우 선수에게 “슈팅 300개를 던져도 실제 시합 중에 몸싸움 하면서 던지는 것처럼 해야 의미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게 무방shot 연습을 늘린 우 선수는 15%대였던 3점슛 성공률을 올해 U리그 33.3%, MBC배 대회 42%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연습량뿐만 아니라 농구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우 선수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대중 운동하는 면이 있었지만 대학에 와서는 농구에 훨씬 진지해졌다”고 말했다. 선수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수비력에 대해 “1대1과 로테이션 수비에서 모두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높아진 3점슛 성공률에도 “원래 목표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여서 아쉽다”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14일 프로농구 드래프트에 도전장
“지명받는다면, 목표는 신인선수상”

오는 14일에는 KBL 10개 구단 감독이 한 자리에 모이는 프로농구 드래프트가 예정돼 있다. 우 선수는 동기인 안세준(스포츠지도학 2022), 지승현(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와 함께 도전장을 내밀었다. 프로 선수로 가는 관문 앞에 선 우 선수는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경기보다도 긴장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만일 우 선수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는다면, 당장 이번 달부터 프로 경기에 출전하게 될 수도 있다. 그는 “프로는 정말 냉정한 곳”이라며 “대학과 달리 한 번의 기회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끈질김으로 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입생 시절부터 우 선수를 지켜봐 온 김현국 감독은 “원거리 슈팅 능력이 뛰어나고, 속도와 1대1 수비에 강점을 보여준 선수”라며 지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2점슛도 개선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선수의 목표는 신인상이다. 그는 “신인 때만 노릴 수 있는 신인상을 목표로 잡았다”며 “높은 목표가 있어야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 “프로에서도 자신 있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한양대와의 사자 더비, 제1회 ‘더 라이언 매치’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체육대학과 한양대 예술체육대학·예체능대학이 주관하는 스포츠 교류 행사 제1회 ‘더 라이언 매치’가 오는 19일 우리학교에서 열린다.

대회는 선승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개최 종목은 축구·농구·이벤트 경기다. 농구는 선승관에서, 축구는 교내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다. 우리학교 농구부 프

런트 측은 이번 축제에 대해 “라이언 매치 특유의 경쟁 구도가 또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시즌이 끝난후 1, 2, 3학년 선수들의 호흡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스포츠지도학과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대학 소속이 아닌 학생들도 경기에 참여한다. 릴레이 농구, 계주, 럭키 드로우 이벤트와 푸드트럭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예정돼 있다. 현장에선 응원타월, 반다나, 굿즈 키트(집색, 수건, 텀블러, 핫팩)를 배부하고, 직접 디자인 선

택을 할 수 있는 체험형 판매 굿즈도 만나볼 수 있다.

1회 대회가 우리학교에서 열리는 것은 우리학교 총동문회와 대외협력처의 주도로 교류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행사 총괄팀장을 맡은 체육대학 박성민(체육학 2023) 회장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경우, 종목 추가와 더불어 대형 시설을 빌리는 등의 행사를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매치는 라이벌전인 동시에 두 학교가 함께 즐기는 축제다. 축구부 주장 이호연(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두 학교의 라이벌 경기를 넘어 하나의 축제 같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 농구부 임성채(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 또한 “경희 사자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에 질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치지 않고 즐겁게 마무리하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학생들의 좋은 반응이 있다면, 올해를 시작으로 사자 문양을 사용하는 두 학교끼리의 정기전이 될 것”이라며 “연고전 같은 큰 행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1회 ‘더 라이언 매치’가 선승관에서 열린다. (사진=더 라이언 매치 인스타그램)

오피니언

11

사설

이공계 인재 유출, 최소화할 방안 찾자

이공계열 학생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유출이 일부 역할을 했고,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 이에 따른 이공계 경쟁력 약화 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이공계 공백이 곧 연구력 약화 및 경쟁력 저하로 우리학 교에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공계 인재 이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우리학교 또한 구조적 위기로 위 사안을 인식하고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학교를 떠난 학생 중 46%가 이공계였고, 지난해에만 412명이 자퇴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작년 대비 52명 증가해, 14.2%p 상승한 숫자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 연계 확대, 그리고 연구를 위한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공계 이탈은 단지 학과 이동이 아닌 연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려된다. 석박사 진학 희망자가 줄어들면서 연구실 인력 공백이 생기고, 기업의 고급 연구 인력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늘었지만, 신규 박사 중 약 30%가 취업에 실패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최고치다. 경쟁력이 있는 연구자가 설 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이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전국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됐고, 이후 우리학교 공대 자퇴율은 14%p나 증가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학계열 쏠림’을 심화시키며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의 이탈을 촉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 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기업 협약 기반의 계약학과를 잇달아 개설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서인 듯하

“

‘이공계 인재 이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우리학교 또한 구조적 위기로

위사안을 인식하고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

다. 우리학교는 올해 RISE 사업을 통해 계약학과 신설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실질적 산학 연계 구조나 기업 협력 모델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위한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장

비 노후화, 실습 공간 부족 등은 여전히 연구생들과 교수의 고민으로 남아 있다. 연구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그에 따른 성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무 중심의 교육 강화도 필수적이다. 공학 분야의 최신 산업 수요에 맞춰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인턴십과 산학 프로젝트를 제도화해야 한다. 교수와 기업이 함께 지도하는 협력형 수업,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 개발 수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금과 연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진학과 잔류 동기를 높여야 한다.

이공계 학생은 우리학교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는 대학 전체 연구력 약화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학생들이 “우리학교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대학은 구체적인 실천과 지원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세시봉

표현의 경계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언론 매체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케 하는 징벌배상이 핵심이다. 이미 일부 정치 유튜버의 음모론과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돼 왔다. 개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규제의 방식과 기준이 모호하며, 그로 인한 자의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문제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허위’이며, 어느 수준의 ‘조작’을 불법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모호한 개념은 판단 주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크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고려할 때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일반 시민의 목소리나 언론의 비판적 보도까지 위축될 우려도 있다. 특히 개정안은 손해 배상 기준 중 ‘타인을 해할 의도’를 고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는 입증하기 어렵고, 결국 해석 권한을 가진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 주체들이 청구권자로 포함돼 있는 점도 문제다. 권력자에게 불편한 언론 보도가 허위조작정보로 규정될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약자와 이들을 대변하는 언론계로 번질 우려가 있다. 물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방치할 수 없는 사회 문제다. 그러나 그 해법이 규제 일변도로 흐른다면, 오히려 언론의 자유와 감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신뢰 관계 회복,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플랫폼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선한 의도조차 모호한 규제 아래에서는 언제나 검열의 도구로 변할 수 있다. 법은 진실을 억누르는 수단이 아닌, 더 많은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개인을 바라보는 방법

프레임 벗기기

김유경 기자
ghajfs@khu.ac.kr



‘젠지스테어’라는 말이 화제다. 대화 중 멍하니 쳐다보는 요즘 젊은 층의 소통 방식을 꼬집는 표현이다.

반대로 길에서 최신 아이폰을 들고 스투시 패션을 입은 중년을 보면 “나잇값 못하고 유난 댈다”며 비판하는 ‘영포티’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세대를 규정하는 단어들 이 빠르게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캠퍼스에서 만난 Z세대는 다르다. 우리학교 교수들과 학교 앞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딱히 젠지스테어를 느껴본 적 없다”, “사람 성격 차이일 뿐이다”, “요즘 학생들,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바르다”는 답이 돌아왔다. 매체에서 강조하는 ‘무례한 Z세대’의 모습은 오히려 낯설었다.

물론 이전 세대보다 말이 짧거

나 답변까지 잠시의 간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무례함’이나 ‘소통 단절’로 해석하기보다는 개인의 표현 방식 차이로 보는 편이 옳다. 교수나 상인 모두 실제로 ‘젠지스테어’를 경험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단 3~5초의 침묵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상대를 ‘젠지스테어’라 단정하기보다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젠지스테어’, ‘영포티’처럼 세대를 규정하는 단어는 결국 한 사람을 특정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프레임이 된다. 하지만 사람은 단 어보다 훨씬 복잡하다. 누군가는 단순히 생각이 느린 사람일 뿐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웃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다.

Z세대도 40대도 어느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없다.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붙여지는 꼬리표는 개인의 맥락과 성향, 경험을 지워버린다. 세대를 바라보는 프레임 을 벗고, 각자의 속도를 가진 ‘개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만평 세대를 규정하는 단어로 개인을 바라본다.

교수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장 하시언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

12 사람

13년 만의 MBC 대학가요제, 대상 밴드 ‘카덴차’

“걱정은 접어두고 밥을 먹고 내일을 또 살아가자”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13년 만에 부활한 ‘MBC 대학가요제’에서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이찬영(포스트모던음악학 2020)·성지원(포스트모던음악학 2021)·강민서(포스트모던음악학 2023)·강민구(포스트모던음악학 2020)·류영근(포스트모던음악학 2023) 씨로 구성된 밴드 ‘카덴차’가 대상을 받았다. 이들을 만나 대상 수상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봤다.

2주 만에 완성한 대상 곡 “영감이 오셨다”

밴드의 시작은 지난 7월 말 즈음 강민서 씨가 대학가요제 공고를 발견하고부터다. 강 씨는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빨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원래부터 곡 작업을 함께 해왔던 성민서 씨에게 출연을 제안했고, 성 씨는 수락했다. 그간 학과 내에서 서로의 연주를 자주 봐왔기에, 실력 좋은 친구들을 하나둘 불러 모으며 빠르게 이뤄졌다. 일명 ‘경희대 어벤져스’였다.

참가곡 ‘허기’를 작업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묻자,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단 2주 만에 스케치부터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 모든 곡 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처음엔 아무런 아이디어 없이 레퍼런스를 몇 곡 찾아보고, 피아노도 쳐보면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다가 딱 코러스 멜로디가 먼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작업실에서 나머지 부분



13년 만에 개최된 ‘2025 MBC 대학가요제’에서 포스트모던음악학과 밴드 ‘카덴차’가 우리학교 학생으로는 19년 만에 대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이찬영, 성지원, 강민서, 강민구, 류영근 씨. (사진=박서연 기자)

까지 하루 만에 전체 곡을 다 만들고, 그다음 날부터 편곡에 들어가면서 착착 진행됐던 것 같아요.”

강 씨는 일사천리로 곡 작업을 마칠 수 있던 것에 대해 “영감이 내려오셨던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곡을 작업하며 생기는 여러 의견 충돌을 갈등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모두의 노력도 한몫했다. 류영근 씨는 “서로 알던 사이이긴 하지만 팀이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반에 서로의 연주를 경청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고, 피드백도 주고받으면서 호흡 맞추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긴장과 즐거움이 공존한 대학가요제 본선 무대

본선 무대를 마치기까지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었다. 강민구 씨는 “이미 참가 신청 영상을 제출한 뒤에 보니 규모가 커서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싶어 부담을 많이 느끼며 준비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강민서 씨는 무대에서 많이 긴장하는 체질이라고 한다. 강 씨는 “본선 무대에 서기 전에 수면제 없이는 못 잘 정도로 많이 떨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동료들이 본선 무대 당일, 아침부터 긴장 상태인 강 씨의 ‘멘탈 관리’를 도우며 무사히 무대를 마쳤다.

본선 당일 세차게 내린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류 씨는 비로 인해 퍼포먼스에 제약이 있었다. “드럼 바로 옆에 천막을 유지하는 철사 같은 게 있었는데, 자주 그 철사가 드럼 스틱에 걸려서 한번 놓칠 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긴장도, 비도 이들의 무대를 망치지는 못했다. 무대에 선 순

간만큼은 모두가 완전히 몰입했다. 성 씨는 “제가 쓴 곡을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해 본 게 처음이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내 음악을 듣고 있다는 생각에 벅차고 재밌었다”며 웃어 보였다.

슬럼프에서 나온 곡 아이디어 ‘감정을 소화한다’

대상 곡 ‘허기’의 아이디어는 강민서 씨가 착안했다. 강 씨는 대학가요제 이전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낙방했다. 하지만 ‘실패는 곧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속상해서 일주일 내내 울고 있던 강 씨에게 대상 곡 ‘허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오디션에 떨어지고 힘든 감정을 ‘그래도 밥을 먹고 살아가지’하며 최대한 씹어 삼키려고 하다가, 그걸 가사로 풀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허기’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 씨는 “슬프고 절망적인 감정을 극복하려면 그냥 아무 생각 하지 않고 밥을 먹고 내일을 또 살아가야 하는 것 같다”면서 “너무 큰 불안과 절망을 다 신경 쓰다 보면 삶이 망가지기에, ‘희망이 찾아오든 절망이

찾아오든 밥은 든든히 먹어가면서 살아가 보자’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꼭 성공하겠다” 카덴차는 계속된다

카덴차는 앞으로도 함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이들의 최우선 목표는 대상 곡 ‘허기’의 음원과 음반 발매다. 최근엔 MBC ‘음악중심’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 “너무나 잘 맞는 멤버들과 같이 음악을 하는 건 행복한 일이니까, ‘행복한 일 같이해보자’는 생각으로 천천히 조금씩 함께 나아가보려 해요.”

이들은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한다. 강 씨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드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 위로를 주는 ‘선한 음악’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세상에는 악한 요소들이 많은데, 음악에까지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를 향한 응원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안다”며 “그럼에도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얼마나 성공하는지 지켜봐 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역대 MBC 대학가요제 우리학교 수상 이력

연도	회차	곡명 (작곡가)	상
1978	제2회	날개 (홍철규 외)	동상
1981	제5회	안개 (문관철 외)	동상
		잊고 산 것 (한인희)	금상
1999	제23회	애꿎은 청춘 (김희규, 박효영)	금상
2004	제28회	돌아설 수 없는 이유 (이지영)	동상
2006	제30회	21살 이야기 (박진호, 지미선)	대상
2025	제37회	허기 (강민구, 강민서, 류영근, 이찬영, 성지원)	대상